나프타 가격 하락세 계속되나?

톤당 170달러 안팎으로 떨어져 … 경기회복 여부가 관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원유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채산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에틸렌 가격이 상승하고 합성수지 가격이 톤당 20-50달러 폭등하는 상황에서 나프타 가격까지 하락해 채산성이 급격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프타 가격은 2001년 10월18일 톤당 200달러 선이 붕괴된데 이어 곧이어 22-26일에는 C&F Japan 기준 192-197달러 수준을 기록했고, 12월초에는 140-150달러로 약세를 보였다.

12월 중순 이후 톤당 170달러 대를 기록한 후 2001년 1월초에는 18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1월중순에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10월 톤당 307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40% 하락한 수준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은 2001년 11-12월 나프타 가격 하락 폭이 PP, PE 가격 하락폭보다 커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12월 중순부터2001년 1월초까지 합성수지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가격이 강세를 보여 고전했으나 나프타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합성수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채산성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나프타 가격 하락이 석유화학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된데 따른 수요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석유화학 경기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 나프타 가격 하락의 호재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채산성 회복의 가장 큰 관건은 경기 회복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23>